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2. 6. 25 제118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2012년 상반기 서울경제 현황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III. 서울의 2/4분기 기업 체감경기
 - IV.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V. 시사점
- 부록: 2012년 2/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하반기 국내 경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上低下低 예상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반면 전국은 3.8% 증가하여 서울의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9%로 전국의 4.7%와 비슷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1%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전국의 2.0%를 고려하면 서울의 효율적인 고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과 퍼펙트스톰 발생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국내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로 예상된다.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미미한 회복세로 반전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2/4분기 90.3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미래생활형편지수」, 「소비지출전망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각각 105.6, 101.5, 100.0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은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계여건 개선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내적 성장은 정체

한편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등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2012년 2/4분기에 각각 83.6, 92.9로 전분기 대비 5.5p, 7.3p 상승하였다. 기업 체감경기도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준치 100을 하회하여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실적지수」는 89.8로 전분기 대비 5.0p 이상 상승하여 외형적인 성장은 개선되고 있으나 「매출실적지수」는 88.3으로 큰 변화가 없어 서울소재 기업의 내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서울경제의 자생력 제고

2012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0.3%p 증가한 2.5%로 전망된다. 「민간 소비지출」도 비슷한 수준인 2.3%로 상반기 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상반기와 같은 3.0%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므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서민경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취약한 기술혁신이나 R&D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도심형 제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

I. 2012년 상반기 서울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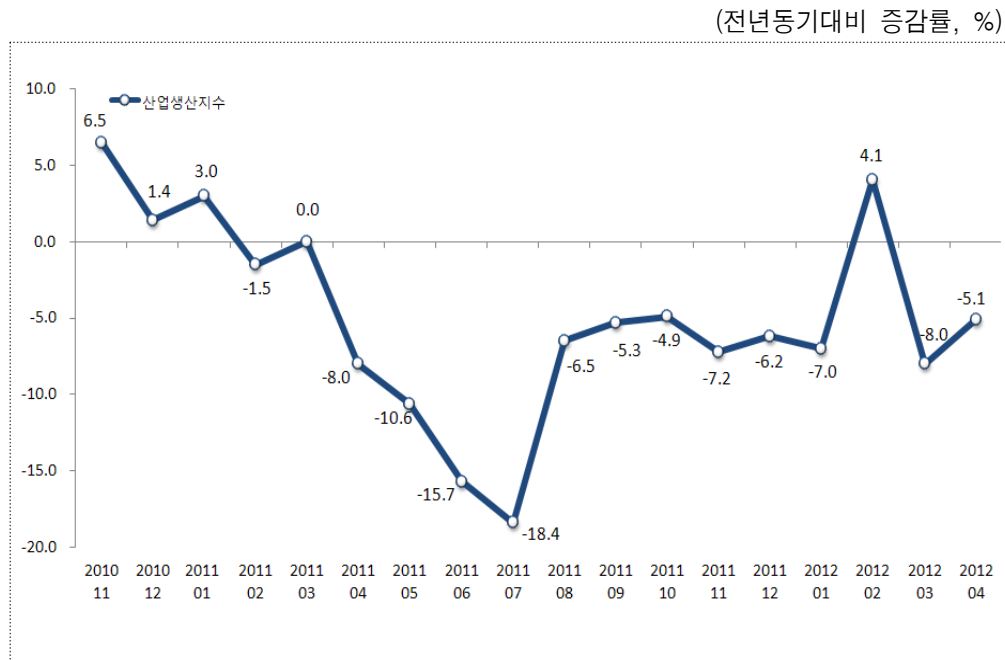
유럽의 재정위기 확대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 2012년도 상반기 유럽 재정 위기 재발로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 2009년 촉발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 경제 난조세 지속
 -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브릭스 경제권인 브라질도 2012년 1/4분기 성장률 하락
 - 유로 국가들은 장기간 긴축재정을 통한 구조조정 예상
 -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및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성장잠재력 둔화 전망
- 퍼펙트스톰의 발생 가능으로 국내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로 예상
 - 미국과 일본의 경기 침체, 중국의 성장잠재력 약화,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하는 퍼펙트스톰 발생 가능성 존재
 - 약 2년간 지속되어 온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스페인의 자본이탈 가속화로 이어져 유로존의 위기감 확대
 - 그러나 EU 정상회담(5월)과 그리스 2차 총선(6월)을 거치면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

상반기 서울의 생산은 둔화, 소비 및 고용은 소폭 증가세 유지

□ 2012년 상반기(1~4월) 서울의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6%로 2011년 1/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 지속
- 서울의 산업생산 부진은 중간재 생산의 큰 폭 감소(-9.4%)와 중간재 (-3.4%) 및 소비재(-6.8%)의 감소에 기인
- 2012년 2월 서울의 산업생산이 일시적으로 4.1%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것은 소비재 생산이 14.2%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
- 2012년 1/4분기 전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8%
- 반면 서울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국에 비해 성장탄력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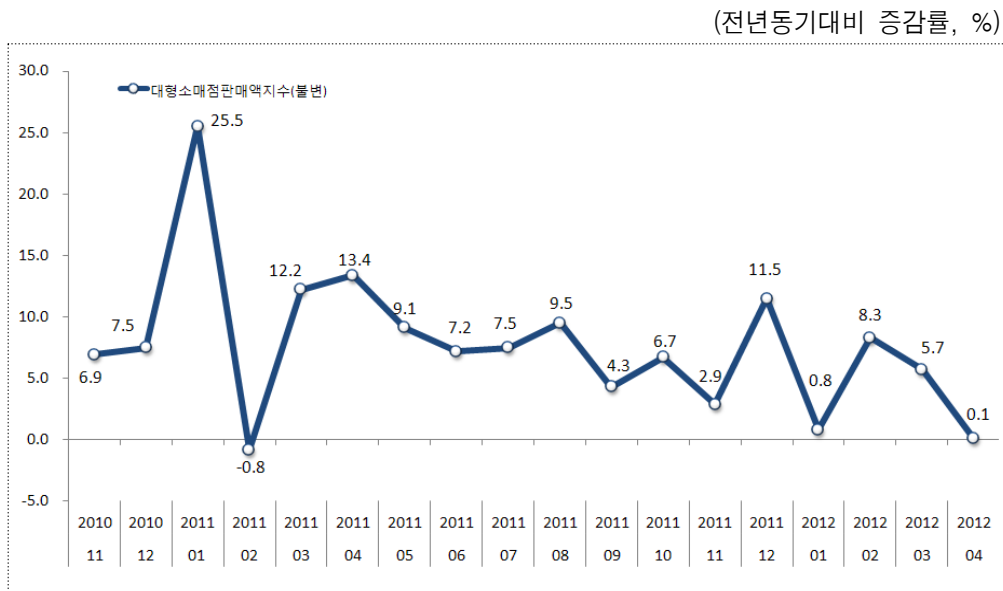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 서울의 소비는 완만한 둔화

- 2012년 1/4분기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9%로 성장세 지속
 - 2012년 1/4분기 중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0% 증가
 -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내수 회복세 유지
- 그러나 서울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14개월간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성장세 둔화
 - 2012년 1/4분기 전국 및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4.7%, 4.9%로 점진적인 내수 회복세를 유지
 -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다소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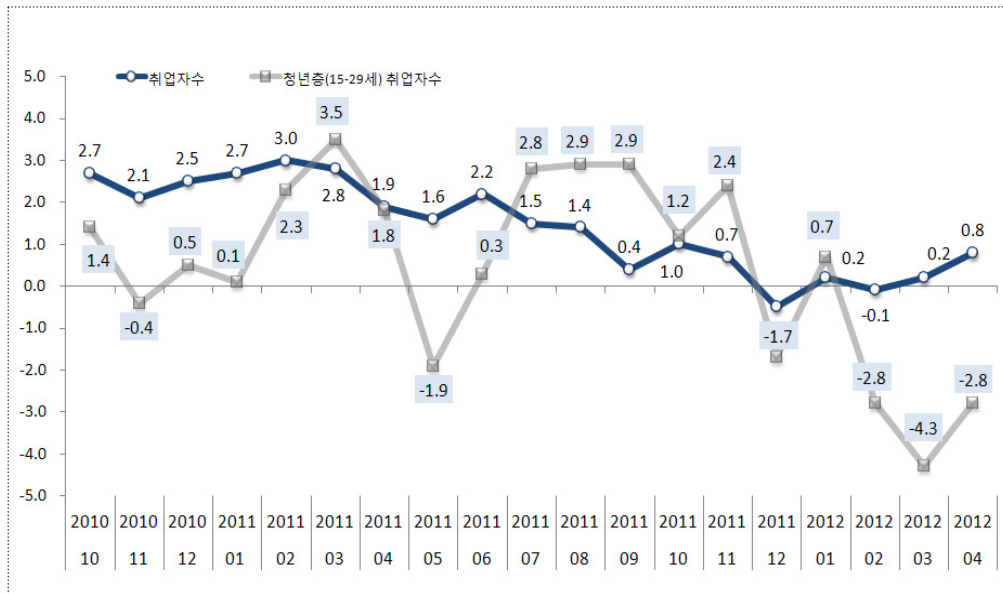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고용사정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
 - 서울의 2012년 1/4분기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1%로 미미하게 증가
 - 2010년 4/4분기 이후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2011년 12월 -1.7%를 저점으로 꾸준한 증가세 유지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1년 3월 최고점인 3.5% 기록 후 불규칙적인 성장을 보이며 2012년 4월 중 전년동월대비 -2.8% 기록
 - 1/4분기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율은 -2.1%를 기록
 - 3월 -4.3%를 저점으로 상반기 중 점차 회복세 예상
 - 2012년 1/4분기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2.0%로 서울과 1.9%p 차이를 나타내 서울의 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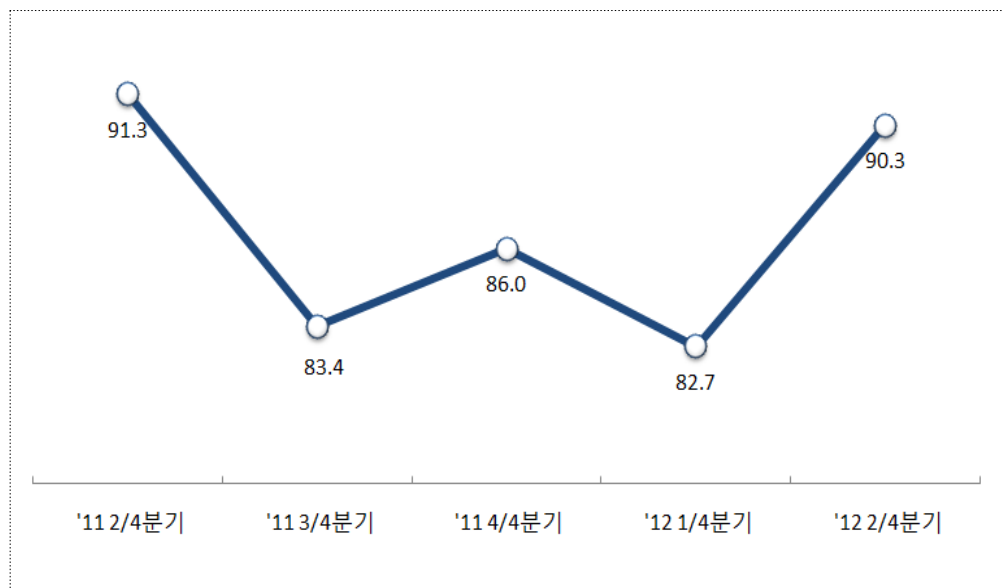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생활형편 등 소비자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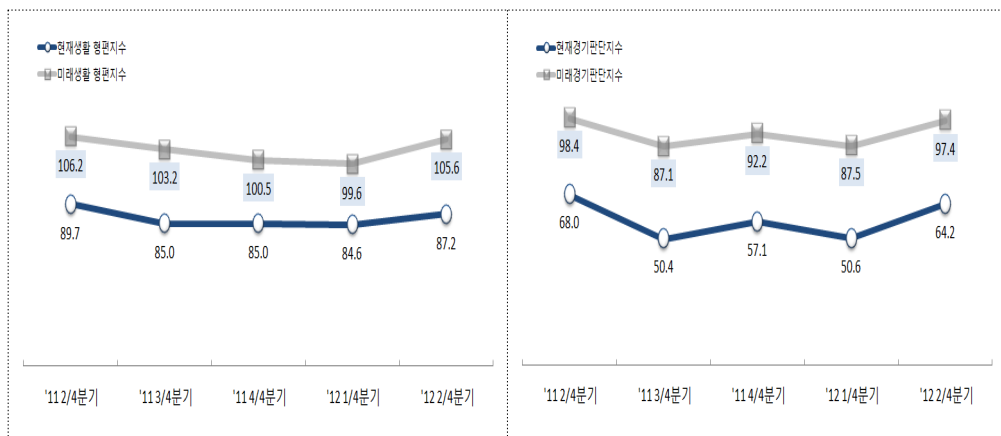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다소 상승하여 소비기대심리 개선
 - 2012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7.6p 상승하여 90.3을 기록
 - 2009년 3/4분기 이후 3년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1/4분기 82.7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반전
 - 그러나 2012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아직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어 여전히 서울의 체감경기는 부정적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년 만에 2011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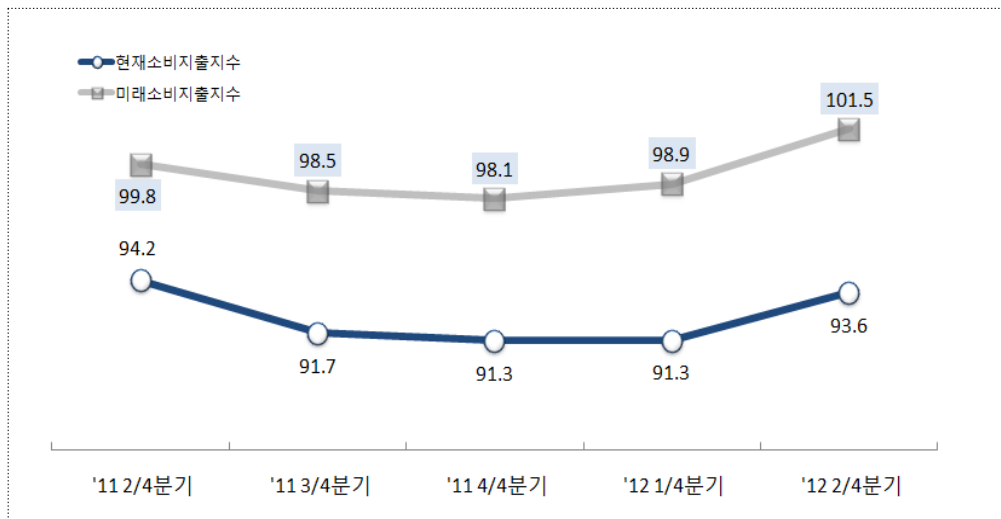
- 2012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2.6p 상승한 87.2, 「미래생활형편지수」는 6.0p 상승한 105.6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보다 「미래생활형편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
 - 서울 시민들은 현재의 생활형편이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미래의 생활형편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1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여 체감경기가 개선
 - 2012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13.6p 상승한 64.2,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9.9p 상승한 97.4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기준치 100을 크게 하회, 「미래경기판단지수」는 기준치(100)에 근접했으나 5분기 연속 100 이하
 - 현재의 경기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상승 폭이 증가하여 미래 경기는 예년 수준인 100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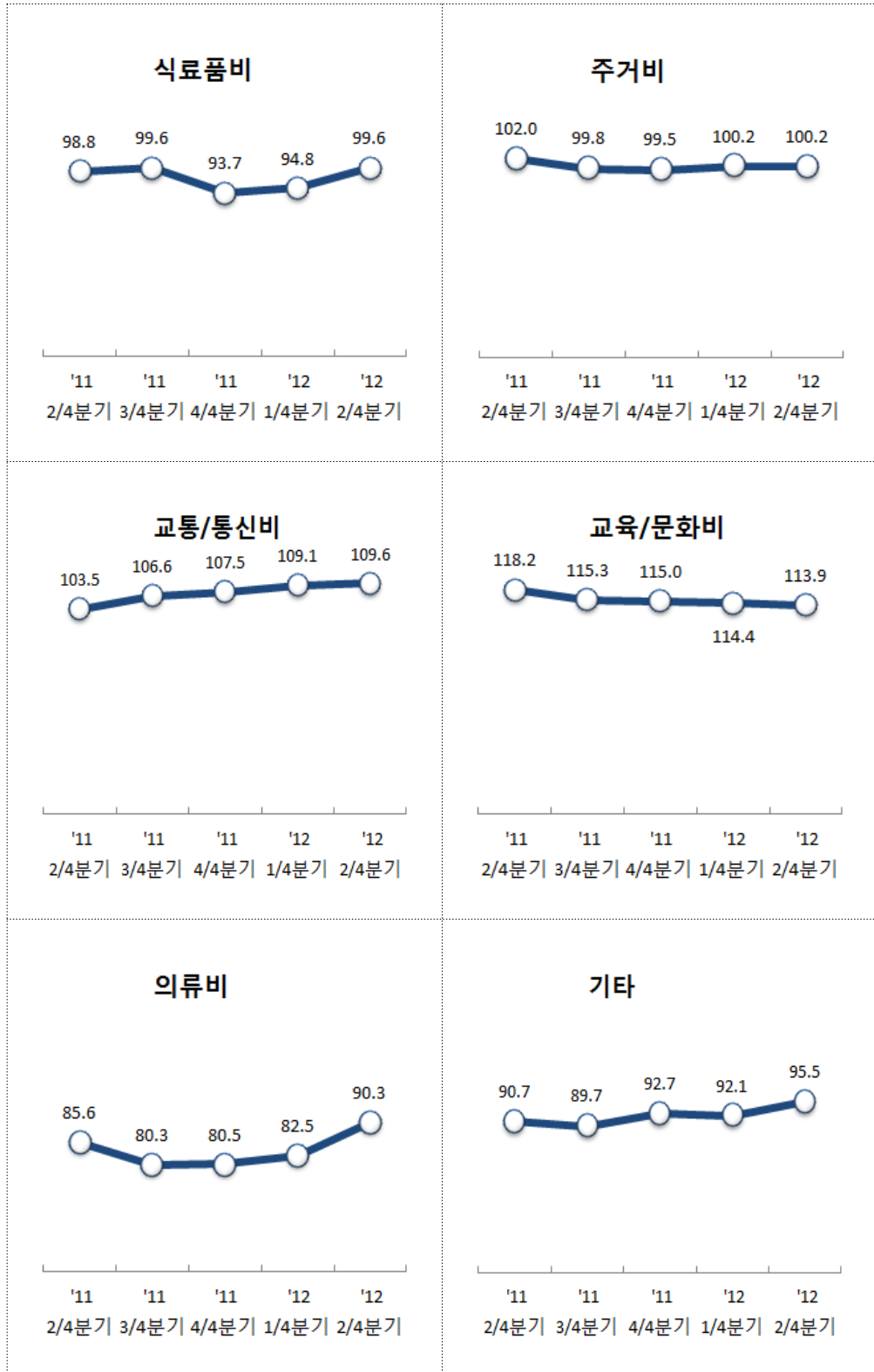
소비지출은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여건 개선은 둔화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
 - 2012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2.3p 상승한 93.6,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6p 상승한 101.5를 기록
 - 특히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08년 4/4분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여 향후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



[그림 6]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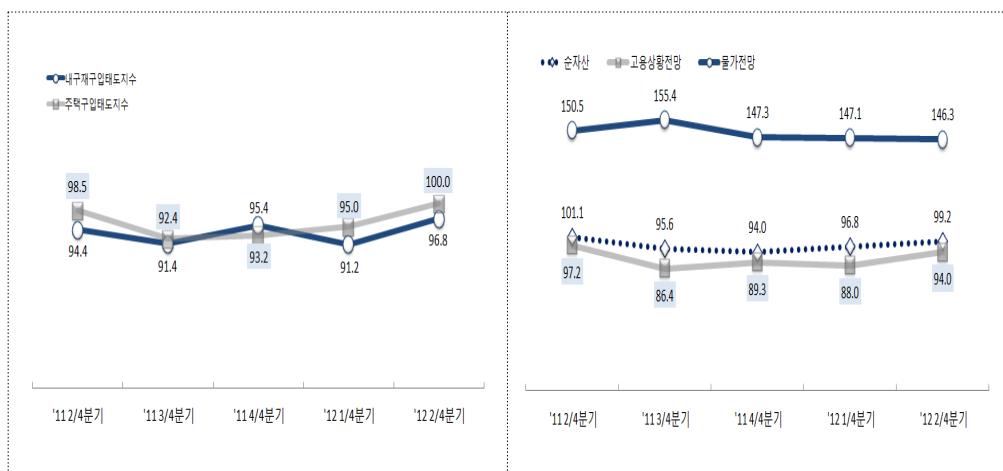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조사 결과 '교육/문화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전망
 - '교육/문화비(113.9)', '교통/통신비(109.6)', '주거비(100.2)' 등 주요 품목의 소비지출 전망은 전분기 대비 보합세
 - 반면 '식료품비(99.6)', '기타(95.5)', '의류(90.3)' 품목의 지출은 큰 폭으로 상승 전망



[그림 7]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한편 2012년 2/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모두 기준치 100에 가까운 값으로 회복
 - 서울의 2012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5.6p 증가한 96.8,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5.0p 증가한 100.0을 기록
 - 「내구재구입태도지수」 증가로 향후 살림살이에 대한 소비는 미미하게 개선될 전망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기준치 100을 회복하여 향후 주택 구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 서울시 가계 순자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황은 미비하게 개선, 그러나 물가 불안 심리는 상존
 - 2012년 2/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99.2로 전분기 대비 2.4p 상승, 「고용상황전망지수」도 전분기 대비 6.0p 상승한 94.0으로 조사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소폭 증가하여 향후 고용여건이 미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예상지수」는 기준치 100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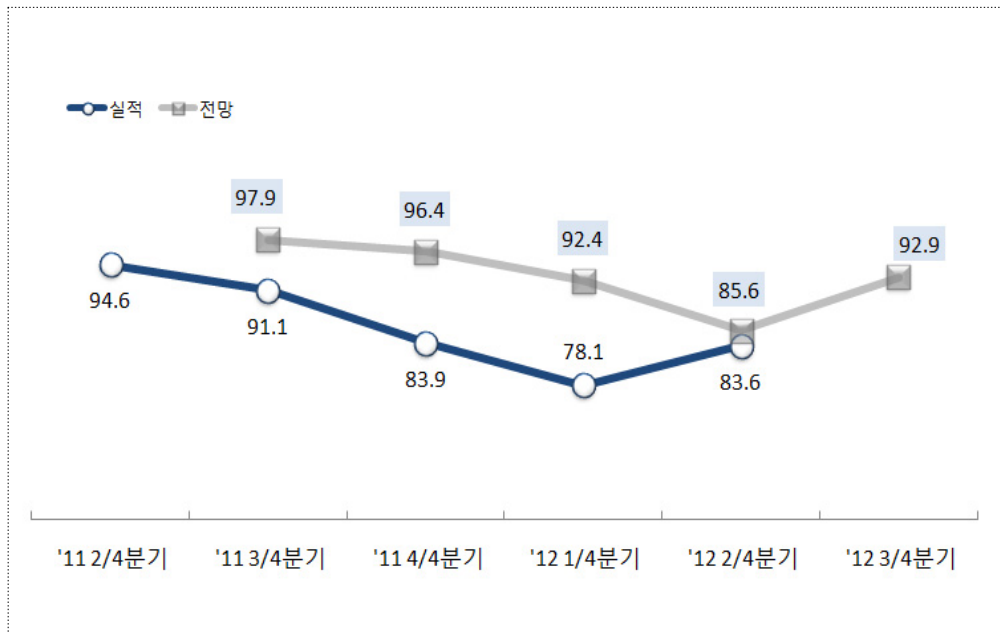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Ⅲ. 서울의 2/4분기 기업 체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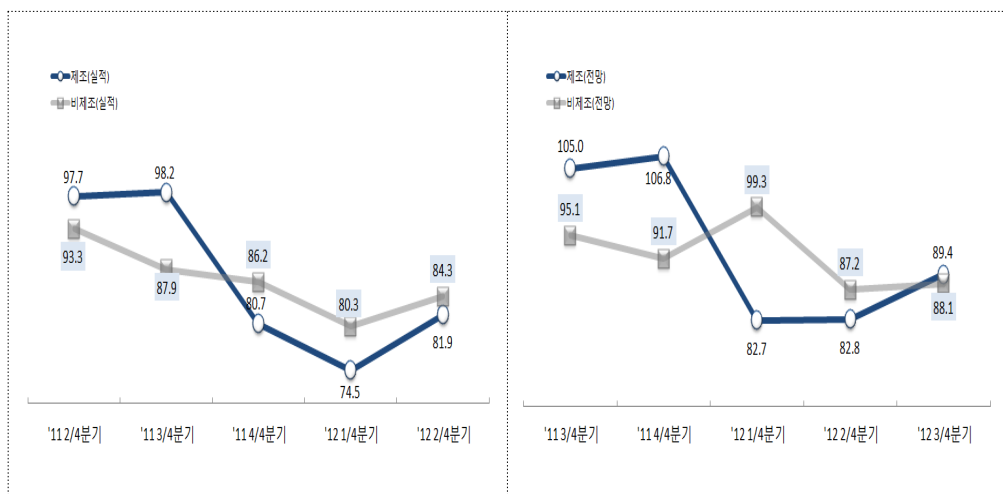
제조업 부문의 생산 증가로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 기대

- 2012년 2/4분기 서울 소재 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상승세로 반전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개선
 - 서울의 2012년 2/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83.6으로 전분기 대비 5.5p 증가하였고, 「업황전망지수」도 전분기 대비 7.3p 상승한 92.9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2분기 전 수준으로 회복
 - 전반적으로 현재 및 향후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림 9]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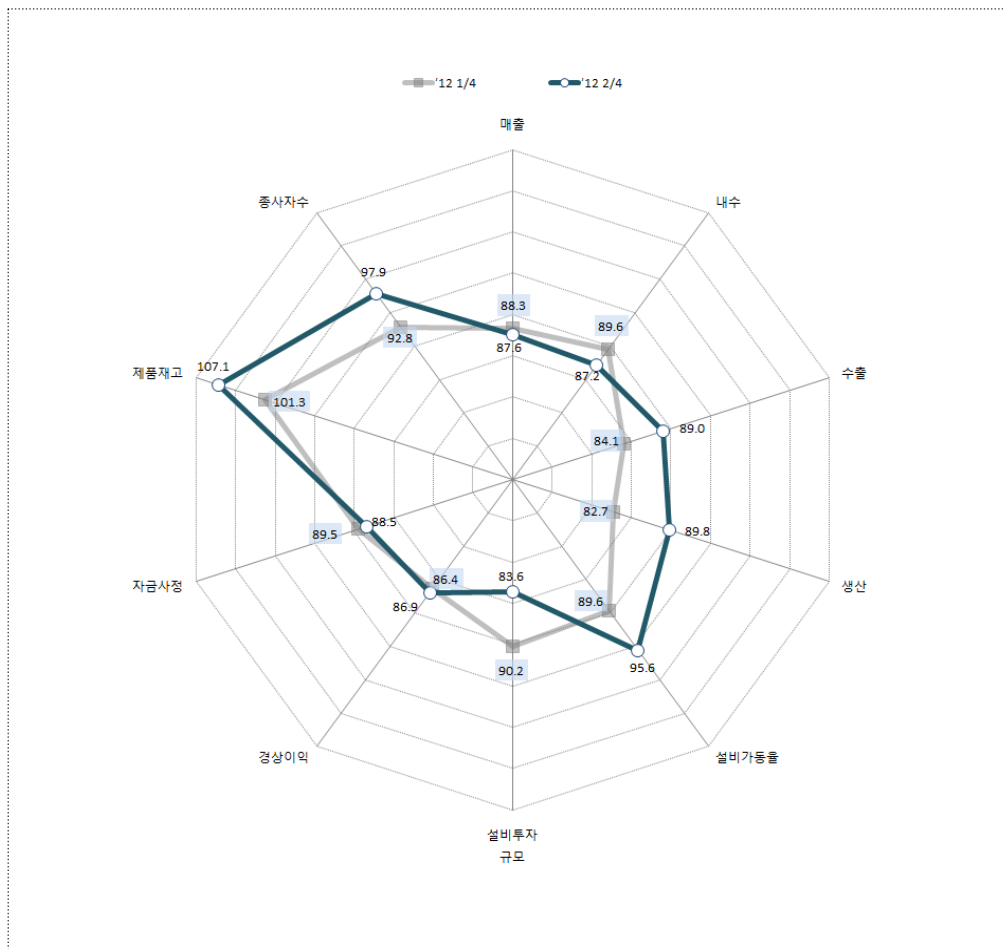
- 2012년 2/4분기 서울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비제조업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 2/4분기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81.9로 전분기 대비 7.4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4.0p 상승한 84.3을 기록
 - 「제조업 업황전망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6.6p, 0.9p 상승한 89.4와 88.1로 제조업의 빠른 회복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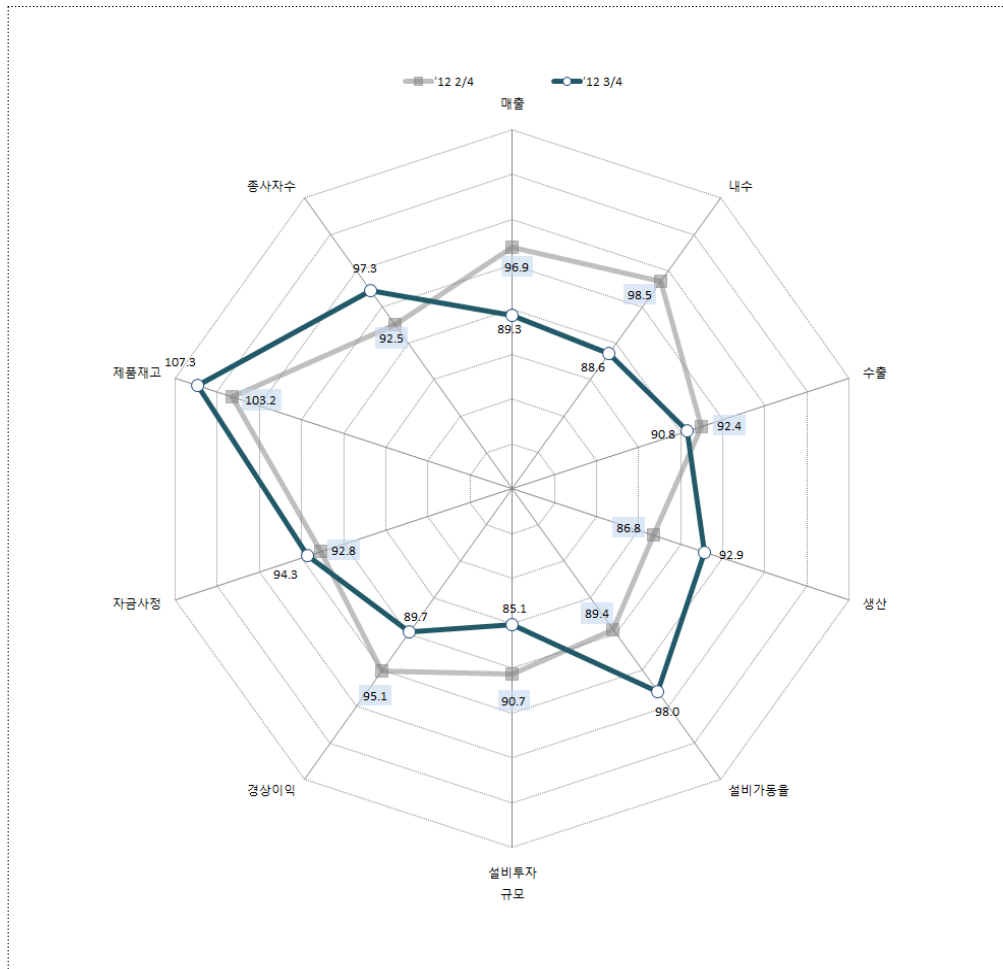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 서울 소재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은 개선되고 있으나 매출과 이익 등 내적 성장은 정체
 - 2/4분기 「생산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7.1p 증가한 89.8을 기록
 - 수출, 설비가동률, 종사자수 등은 전분기 대비 5p 이상 상승하여 외형적인 성장 시현
 - 반면 「설비투자규모」는 전분기 대비 6.6p 감소한 83.6을 기록하여 큰 폭으로 감소
 - 매출,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은 아직 부정적

- 3/4분기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매출, 경상이익, 내수 등이 하락하여 현재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조사
 - 「설비가동률지수」는 가장 큰 폭(8.6p) 증가한 98.0을 기록하는 등 제품 생산과 재고, 종사자수에서 향후 성장 예상
 - 그러나 「내수전망지수」는 9.9p 하락한 88.6으로 매출, 내수, 경상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11]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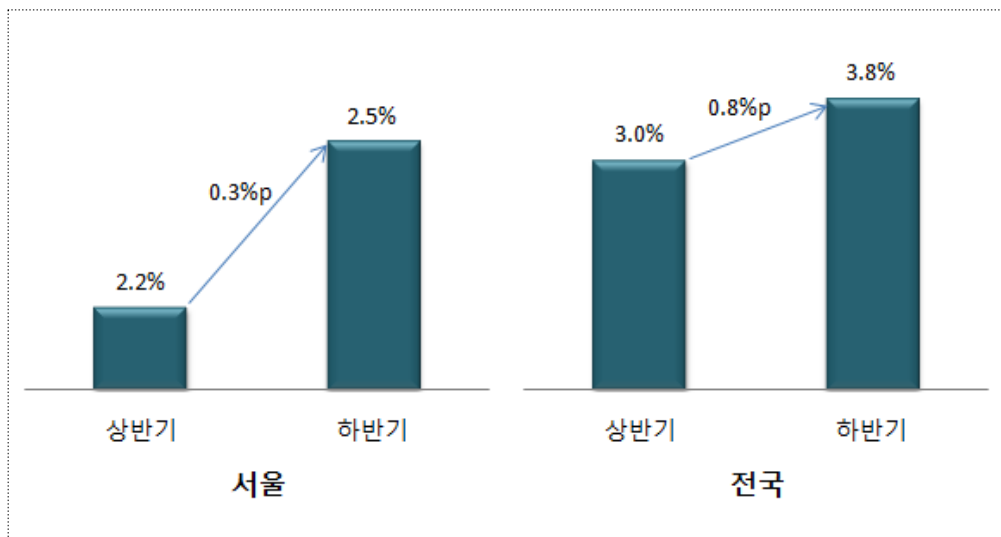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지수

IV.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012년 하반기 서울의 내수부문과 고용은 다소 개선될 것이지만 전국대비 성장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2.5%로 전망

- 내수부문과 고용사정 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대비 0.3%p 높은 2.5% 성장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당초보다 성장세는 다소 둔화 예상
- 연간 서울의 성장률은 2.4%로 전국의 성장률 3.4%보다 1.0%p 낮을 전망
 - 서울은 서비스업과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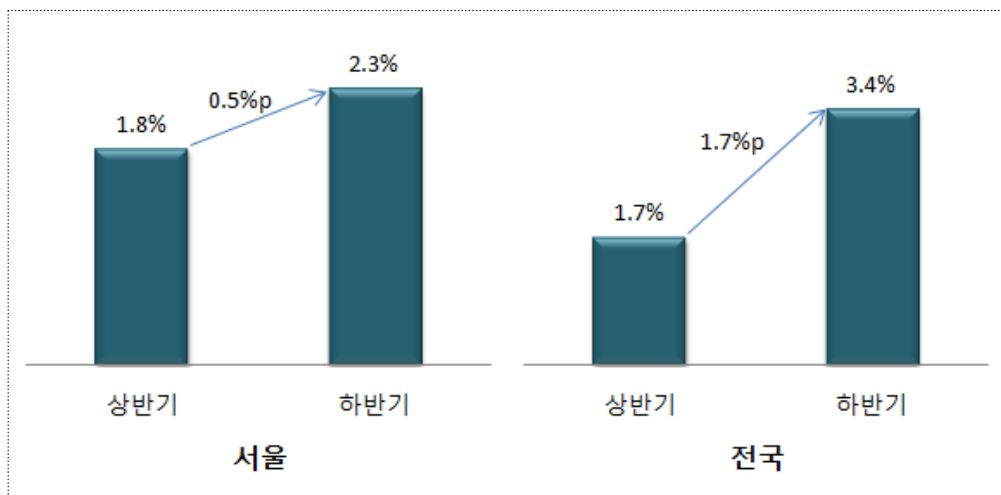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4.16), KDI(2012.5.18), KERI(2012.5.10) 전망치 평균

[그림 13]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서울의 하반기 민간소비지출 2.3% 증가 전망

-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가부담 완화로 상반기 대비 0.5%p 증가한 2.3% 예상
- 2012년 2/4분기 'SDI 소비지출지수'는 101.5로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 예상
- 미비한 내수 증가로 연간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전국 대비 0.5%p 낮은 2.1% 성장 전망
- 서울과 전국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민간소비지출 증가폭은 각각 0.5%p, 1.7%p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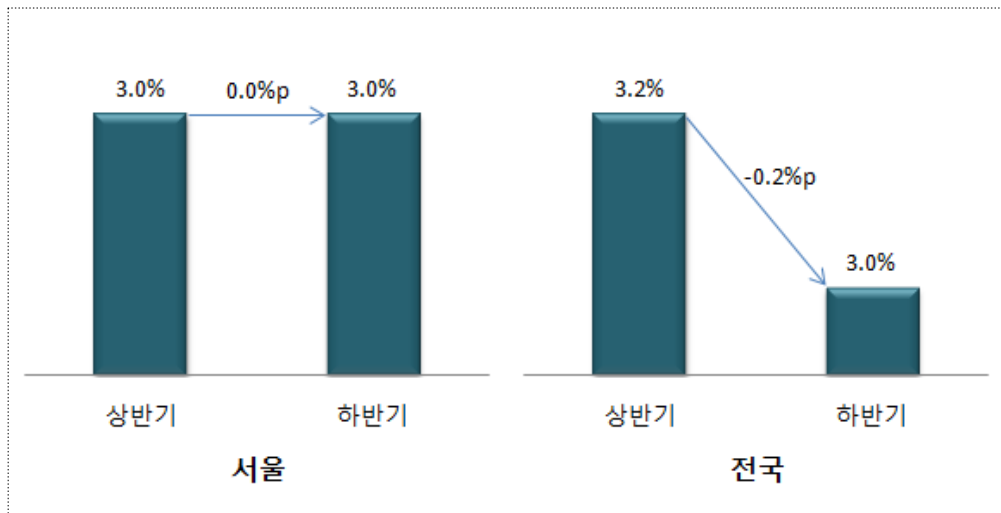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4.16), KDI(2012.5.18), KERI(2012.5.10) 전망치 평균

[그림 14]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 서울의 하반기 물가상승률 3.0%로 전망

- 하반기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경기 둔화와 보육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

-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안정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요금인상이 제한되었던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주택임차료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압력으로 보합 예상
- 서울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3.0%,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3.1%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 예상
-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물가 충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서울과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3%대로 안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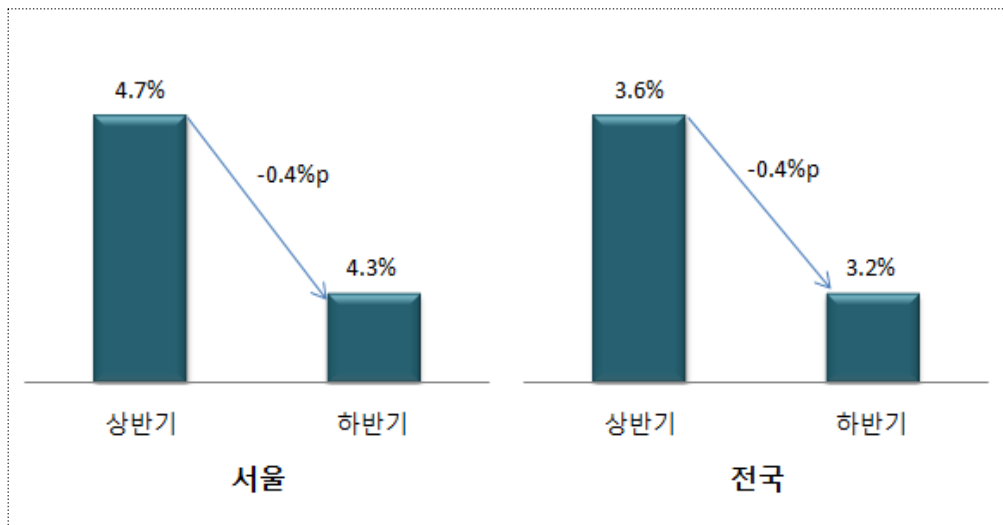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4.16), KDI(2012.5.18), KERI(2012.5.10) 전망치 평균

[그림 15]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서울의 하반기 실업률 4.3%로 전망

-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민간부문의 고용개선에 따라 상반기 대비 0.4%p 하락한 4.3% 전망
- 서울의 고용률은 2012년 1월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4분기 「종사자수 전망지수」는 97.3으로 고용시장의 급격한 개선은 힘들 전망

- 연간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전국의 실업률 3.4%에 비하여 1.1%p 높을 것으로 전망
- 상·하반기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은 민간부문의 고용확대에 따라 0.4%p 감소 예상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4.16), KDI(2012.5.18), KERI(2012.5.10) 전망치 평균

[그림 16] 2012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V. 시사점

**하반기 서울경제는 점차 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성장을 둔화**

-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상반기 대비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상반기와 같은 3.0%로 안정 예상
 - 물가안정에 따라 소비는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나 실질구매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로 상반기 대비 0.5%p 상승한 2.3% 전망
 -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하반기 실업률은 상반기 대비 0.4%p 감소한 4.3% 전망
- 2012년 2/4분기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와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지만 큰 기대는 어려울 전망
 - 서울의 2012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와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7.6p, 5.5p 상승한 90.3, 83.6
 -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도 전분기 대비 각각 2.6p, 13.6p 상승한 87.2, 64.2로 체감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기준치 100을 하회
 - 「생산」은 89.8로 전분기 대비 7.1p 상승하여 외형적인 성장을 기록
 - 「매출」은 전분기와 비슷한 87.6으로 내적 성장은 정체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 서민들의 복지,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 서민생활 지원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가계소득 안정화 유도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 복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종합상담 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통해 성장기반 강화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서민 자영업 보호육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
 - 기술혁신이나 R&D개발 지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취약한 기술 경쟁력 확보
- 도심형 제조업과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 성장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의 기초가 되는 도심형 제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 산업의 육성이 중요
 - 인쇄, 의료봉제 등 4대 도시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
 - 신성장동력산업의 IT, BT, GT 등 차세대 스마트 기술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R&D 활성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2년 2/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 | 소비자 태도 | 생활 형편 | | 경기 판단 | | 구입 태도 | |
|-------------|--------|---------|---------|---------|---------|----------|---------|
| | | 현재 생활형편 | 미래 생활형편 | 현재 경기판단 | 미래 경기판단 | 내구재 구입태도 | 주택 구입태도 |
| 2011년 2/4분기 | 91.3 | 89.7 | 106.2 | 68.0 | 98.4 | 94.4 | 98.5 |
| 2011년 3/4분기 | 83.4 | 85.0 | 103.2 | 50.4 | 87.1 | 91.4 | 92.4 |
| 2011년 4/4분기 | 86.0 | 85.0 | 100.5 | 57.1 | 92.2 | 95.4 | 93.2 |
| 2012년 1/4분기 | 82.7 | 84.6 | 99.6 | 50.6 | 87.5 | 91.2 | 95.0 |
| 2012년 2/4분기 | 90.3 | 87.2 | 105.6 | 64.2 | 97.4 | 96.8 | 100.0 |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 | 소비지출 | | 순자산 | 고용상황 | 물가예상 |
|-------------|---------|---------|-------|------|-------|
| | 현재 소비지출 | 미래 소비지출 | | | |
| 2011년 2/4분기 | 94.2 | 99.8 | 101.1 | 97.2 | 150.5 |
| 2011년 3/4분기 | 91.7 | 98.5 | 95.6 | 86.4 | 155.4 |
| 2011년 4/4분기 | 91.3 | 98.1 | 94.0 | 89.3 | 147.3 |
| 2012년 1/4분기 | 91.3 | 98.9 | 96.8 | 88.0 | 147.1 |
| 2012년 2/4분기 | 93.6 | 101.5 | 99.2 | 94.0 | 146.3 |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 구 분 | 실적 | | | | | 전망 | | | | |
|--------|------------|------------|------------|------------|------------|------------|------------|------------|------------|------------|
| | 2011 2/4분기 | 2011 3/4분기 | 2011 4/4분기 | 2012 1/4분기 | 2012 2/4분기 | 2011 3/4분기 | 2011 4/4분기 | 2012 1/4분기 | 2012 2/4분기 | 2012 3/4분기 |
| 매출 | 100.3 | 95.8 | 89.5 | 88.3 | 87.6 | 104.1 | 98.1 | 91.7 | 96.9 | 89.3 |
| 내수 | 100.1 | 95.6 | 90.5 | 89.6 | 87.2 | 103.9 | 97.7 | 93.0 | 98.5 | 88.6 |
| 수출 | 89.3 | 111.1 | 87.3 | 84.1 | 89.0 | 95.3 | 111.1 | 88.9 | 92.4 | 90.8 |
| 생산 | 94.7 | 107.9 | 88.2 | 82.7 | 89.8 | 102.1 | 107.2 | 89.2 | 86.8 | 92.9 |
| 설비가동률 | 96.3 | 101.9 | 88.7 | 89.6 | 95.6 | 103.8 | 105.7 | 91.7 | 89.4 | 98.0 |
| 설비투자규모 | 99.7 | 107.2 | 86.5 | 90.2 | 83.6 | 97.7 | 107.5 | 87.4 | 90.7 | 85.1 |
| 경상이익 | 100.6 | 92.9 | 90.0 | 86.4 | 86.9 | 102.7 | 95.9 | 92.3 | 95.1 | 89.7 |
| 자금사정 | 93.6 | 87.7 | 93.2 | 89.5 | 88.5 | 97.2 | 89.9 | 95.1 | 92.8 | 94.3 |
| 제품재고 | 95.6 | 101.6 | 101.5 | 101.3 | 107.1 | 99.3 | 98.6 | 100.9 | 103.2 | 107.3 |
| 종사자수 | 97.0 | 94.8 | 92.2 | 92.8 | 97.9 | 98.6 | 95.0 | 94.1 | 92.5 | 97.3 |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2012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2년 5월말).